

2기 탐험대원 이승준

**우주광고
성공하던
그 날의 스케치**



도전

협업

몰입

끈기



01.

나는 2기 탐험대학 인공위성팀 탐험대원 이승준이다.

전국이 비 예보로 먹구름으로 뒤 덮였던 8월 2일.

우주 광고를 할 우리 인공위성을 직접 띄우는 날이다. 오늘을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렸다.

목적지는 에어로마스터 담양비행장근처 인근 공터. 가즈야~~

새벽6시 담양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오늘 맑은 하늘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다.



02.

가는 길에 간간히 보인 햇살이 너무 고마웠다. 내 기도가 들렸던 것일까?

잠깐 잠깐의 소나기를 제외하고는 하늘은 인공위성을 날리기에 문제가 되지않았다.

세상의 습도를 모두 흠뻑 머금은 후텁지근한 공기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주루룩 흐르게 했고 끈적끈적한 땀냄새를 맡은 모기떼는 인공위성 마지막 점검에 몰입한 우리 대원들을 사정없이 공격했다. 체감온도 45도 불쾌지수 100% 모기공격도 99.9% !!

(무언가에 집중하기에 적당한 상황은 절대 절대 아니었음ㅠㅠ)



03.

우리는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해 열심히 마무리 작업을 했다.

핸드폰 배터리, 카메라를 테스트하고, 시계도 잘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 점검과, 보수작업을 했다.

하늘 다녀온 기념으로 기억할 동생과 내 이름이 적힌 탐험노트도 살짝 넣었다.

평소 같으면 견디지 못하고 투덜거렸을 더위와 모기와의 싸움이었지만 마지막 준비를 하던 한 시간만큼은 그 어떤 불편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순간을 ‘몰입’이라고 하는가 보다!



04.

드디어 마지막 작업인 풍선에 헬륨가스 넣기.

헬륨이 다 들어가기도 전에 인공위성 풍선이 날아갈까봐 가스를 넣는 동안 꼭 붙잡고 있었다.

내 마음도 헬륨 가스를 담은 듯 너무 들떠서 인공위성과 같이 날아갈 것 만 같았다.

헬륨가스 채우는 작업이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만은 않았다.

절반이상 채웠을 때 후두둑 갑자기 쏟아지는 비 때문에 발사를 포기할 뻔 했다.

그 순간은 하늘이 정말 원망스러웠다. 빗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하늘도 감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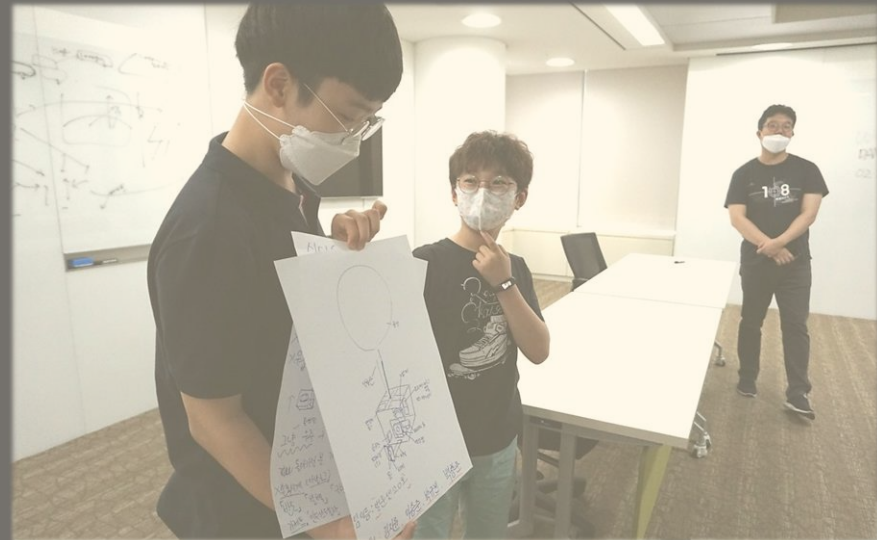
05.

마침내 비도 멈추었고 풍선은 헬륨가스로 가득 차서 스티로폼 박스에 달린 인공위성은 하늘로
날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 흥분되던 순간을 담아 단체 사진도 남겼다. 지금도 이 사진을 볼 때면 그 때가 생생하게 기억된다.

제일 막내였던 나를 배려해준 형 누나 덕분에 풍선이 내 손에서 서서히 날아올랐다.

우와!! 정말로 우리의 인공위성이 슈웅~ 날아올랐다.



06.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만나야만 했던 아쉬웠던 날들, 진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뭔가 부족하지는 않나 고민했던 시간들, 계속된 장맛비 예보에 취소되지는 않을까 염려했던 마음들이 모두 사라지고 무언가 가슴 뜨거운 찡한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우리가 해 낸 것이 너무 기뻐서 우주를 담아올 인공위성이 너무 기대되어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동생도 신기해하며 하늘을 보면서 방방 뛰어다녔다. 모기헌혈에 별걸게 부풀어 오른 팔 다리를 굵적이며 우리는 함께 웃었다.



07.

집중 탐험 일정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준 하늘에게 감사했다.

그 날 그 시간 전국에 엄청난 비가 내렸는데 담양하늘만은 비켜갔으니 말이다.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열정으로 이끌어주신 박재필 멘토님과 운영진 선생님들, 중간중간 있었던 실수와 오류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간 탐험대원 동료들의 도전과 열정이 값진 성공을 만들어 내었다. 내 마음보물상자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담겼다.

뜨겁게 몰입했던 그 날의 스케치를 남긴다.